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9.4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 이가은 「不二」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9 / 4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방생에 대해서
산다는 것 그림다는 것	09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길상사 시간여행	14	성북동 길상사 터의 역사 ①
아름다운 마무리	20	4월 결연 대상자 - 최영진
나의 아름다운 벚꽃 동산	22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24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인권 아단법석	27	저기요, 질문 있습니다.
옛날 사람처럼 먹어라	30	잡초와 채소
알아두면 좋은 복지 정보	34	실업자 및 구직자
모단 에세이	36	봄! 봄! 봄!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39	
길상사 소식	49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9년 4월 1일 발행 / 통권 290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방생에 대해서

글·법 정(法 頂)

옛것제는 때이닌 눈보라가 훑날렸 습니다. 옛말대로 춘설(春雪)이 분분(紛紛)했지요. 가지에서 움이 터 오르 다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도 속 옷을 벗은 채 저자에 나갔다가 오들 오들 떨어졌습니다. 새봄이 오기까지는 늘 그렇듯이 이런 겨울의 뒤치다꺼리가 따라야 합니다.

봄이 되면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약동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이름의 불사와 범회가 예년처럼 또 잇 따를 것입니다. 그 솔한 행사들을 치 르면서 그 일이 과연 법다운 일인지, 바람직한 일인지도 그때그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교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이고 자 각의 길이라면, 우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행사 가운데서 방생(放生)을 한 예로 들어봅시다. 보나 마나 올봄 에도 방생이라는 행사가 잦을 것입니 다. 흔히 우리들은 계율이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지 말라든가 무엇을 해 서는 안 된다는 등 귀찮은 규제로 알 기 쉽습니다. 물론 계율에는 그런 면 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타 율적인 면보다는 자율적인 면이 훨씬 강합니다.

계율이란 말은 계(戒)와 율(律)로 이 루어진 합성어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율은 일반 사회의 법률과 같아서 규 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연히 자율

적인 수밖에 없지요. 사람은 완성된 인격이 아니므로 개인의 인격 형성과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외부적인 규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 습니다.

율에 대비해서 계는 도덕과 같은 성 격을 짚니다. 도덕도 우리를 규제하긴 하지만 그것은 타율적이기보다는 어 디까지나 자율적입니다. 계라는 말이 원래 뜻은 습관성을 말한 것인데, 좋 은 일을 몸에 배게 하는 일입니다. 그 러므로 스스로 지켜야 할 생활 규범 이고 자기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길들여 몸에 배 지 않으면 공허한 잣빛 이론에 그치 고 맙니다. 우리들의 행동양식은 순 간순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 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목숨 죽이지 말라는 가르침은 타 율적인 율의 성격이 강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산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로 바뀌면 자율적인 계의 성격을 띠 게 됩니다. 모든 불자들이 다 같이 지

키는 다섯 가지 계(五戒)의 의미는 무 엇무엇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요, 맹 서입니다.

산목숨을 죽이지 않겠다는 맹서는 훌륭한 도덕입니다. 모든 생명은 원천 적으로 모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살 려고 하는 그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 는 것은 청정한 규범이요, 생명 가진 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 은 지극히 소극적인 원면입니다. 한결 음 나아가 산목숨을 어떤 재난으로부 터 살리고 간헐 데서 놓아줄 수도 있 어야 합니다. 생명의 바탕인 사랑과 자유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방생은 불살생계(不殺生戒)의 적극 적인 표현이요, 행위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도 많지만 죽게 될 목숨을 구 원해주는 일처럼 귀하고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임종의 자리를 지켜본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 의 생명이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살 고자 애쓰는가를, 다시 소생할 수 없

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얼마나 애타게 살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방생의 원뜻은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죽게 된 목숨을 생명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이런 거룩한 뜻이 근래에 와서는 엉뚱하게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뜻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합니다. 시장에서 미꾸라지나 자라 몇 마리 사서 물에 넣어주는 행사로 만족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것도 봄가을에 한 차례씩 관광버스를 타고 시외로 놀러가는 야유회 비슷한 놀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산목숨을 놀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계나 율의 정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결과적으로 생명을 괴롭히는 위선이고 사회적으로도 규탄 받아야 할 일입니다.

몇 해 전 불일로 서울에 갔다가 뜻밖에 어떤 방생 법회에 참례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도가 많은 그 절은 관광버스를 40여 대나 동원했습니다. 소대장 격으로 스님들이 두 차에 한 명꼴로 배당되었습니다. 행선지는 부여의 백마강. 서울에서 백마강까지 그 먼 길을 미꾸라지와 자라들은 팔자에도 없는 관광버스를 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도 같은 사람 틈에 끼어 멀미를 앓아야 하는데 물고기들은 어떡했겠습니까. 강가에 닿으니 4분의 1쯤은 죽어 있었습니다. 방생의 이름 아래 살생을 자행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놀라웠던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듣기 거북하더라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고기의 먹이는 사람이 먹는 밥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비닐주머니에 싸온 밥을, 모두 합하면 몇 말이나 될 그 밥

을 강물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비닐봉지까지 넣어 강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곁에서 제지했지만 극성스런 할머니들은 신들린 사람처럼 중얼중얼 주문과 염불을 외면서 축원을 하느라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언급해야겠습니다. 40여 대의 관광버스가 소위 불자들이 태우고 방생법회를 하러 가는데 그 무질서란 실로 한심스러웠습니다. 옥산 휴게소에서 불일들 보라고 잠시 차가 멈추었습니다. 이때 무슨 난리라도 난 것처럼 일제히 앞을 다투어 변소로 뛰어가는데,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어디 이쁜인 줄 아십니까. 한꺼번에 변소로 몰려드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체면 불구하고 그 둘레에다 마구 방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날 법회에 참례한 많은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또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둘러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되지도 않는 노랫가

락들을 고래고래 뽑아대는 바람에 멀미를 앓아야 했습니다. 이 무질서가 오늘날 한국 불교의 단면인가 싶으니(설령 일부라 할지라도) 같은 불자의 처지에서 자책과 부끄러움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자들은 교회하기 나름입니다. 스님들 자신이 부처님의 정법으로 교회하지 않고, 세속적인 물질주의와 기복(祈福)에 영합한 결과가 그날의 그런 광경을 노출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잘못 저질러진 이런 비리는 또 한 우리 시대에 바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결코 방생 자체를 부정하거나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된 방생을 바로 고치자는 뜻에서 결례를 무릅쓰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절에서는 방생 법회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합니다. 회비를 미리 거둬 음식과 기념품을 준비해 가지고 교도소를 찾아가 한때의 잘못으로 옥고를 겪고 있는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글 • 최중태

불우한 이웃들을 조용히 위로한다고 합니다. 또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 그날 하루만이라도 외로운 이웃들에게 어머니와 며느리 노릇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방생 법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절에서는 미리 연락을 한 뒤 일선으로 장병들을 위문 가는 그런 방생법회를 갖는다고도 합니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흐뭇하고 정겨운 일입니까.

굳이 공덕을 따진다면 고기 몇 마리 사 가지고 강으로 '야유회'를 가는 것 보다는 불우한 이웃을 돕고 밤낮으로 전쟁 방지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동생과 아들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일이 훨씬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바른 믿음의 터전 위에 바른 행이 따라야 함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른 믿음과 행을 통해서 불성(佛性)을 일깨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하루

하루 살아가는 일이 향상의 길에 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쉬운 것 없이 두루 갖추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의 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불자가 되었다면 바른 법에 의지해서 바로 살아야 합니다. 이 봄에 있을 방생법회에는 방생의 근본 뜻을 되살려 우리들 자신 속에 스며든 비리부터 내보내야겠습니다.

정법의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른 법을 행하면 바로 그때가 정법의 시대입니다. 1983

선이라는 나이가 있다. 내가 살아 온 길을 통틀어 볼 때 가장 힘든 시절이었다. 공자는 그 나이에 천명을 알았다[知天命(지천명)] 했다. 글자 그대로를 풀이해 보면 “하늘이 내게 명하는 바를 터득할 수 있었다.” 그런 말로 들린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 뜻을 물었다. 그러나 속 시원히 풀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40에 불혹하고, 50에는 천명을 알았다.” 지금도 내 가슴속에 큰 숙제로 남아 있다.

나는 그 선 살 나이 때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조각이란 무엇

인가. 자나 깨나 그 생각이었는데, 하루 전날 아!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른다는 것을 알았을 때 대단히 시원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통쾌한 일이었다. 지금도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좋았는지 알지 못한다.

4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오늘은 내가 중대 발표를 하겠다 하고 선언했다. “조각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모른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 학생들이 와하고 웃었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좋았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다. 모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왜 그렇게도 좋았을까.

- 「산방한담」에서

그림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알 수 없는 것. 우주의 시원과 창조주라는 것,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그런 궁극의 문제에 대한 의문이 일시에 모른다는 것으로 풀린 것이다. 다 모른다면 허망한 일이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 허무(虛無)가 아니라 무엇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충만감이 있었다. 이상한 기쁨이 있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내 모든 의문을 일시에 모르게 된 것인데 그게 왜 그렇게도 통쾌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지금도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그러나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그런 것들을 누가 알겠는가? 당연한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것인데, 그게 쉰이라는 나이였다는 것이다.

내가 그림 그리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그림이 무엇인지 알고서 그리는 사람은 없다. 당신은 왜 글을 쓰시오 하는 물음에, 그것을 알기 위해 쓴다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 어떤 이는 모른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심각한 독백을 한 사람도 있다.

효봉 스님이 열반하실 때 옆에서 한 말씀 가르침을 청했는데, 답인즉 '무(無)'였다. 유명한 이야기다. 그런데 그 뜻을 누가 알겠는가. 하느님이 셋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첫머리는 말한다. 어떤 복음서에는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도덕경」 서두에 누구나 다 아는 수 수께끼 같은 말이 있다. 도가도비상

도(道可道非常道)이다. 형언할 수 없는 무엇이 있다는 말로 들린다. 이럴진대 내가 모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없이 많은 예술가가 위대한 작품을 남겼지만 그림이란 이런 것이라고 답을 낸 사람은 없다. 수없이 많은 철학자가 있었지만 삶의 근본 물음에 대한 정답을 만든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 알 수 없는 세상을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산다. 철 따라 꽃은 피고 땅과 바다에는 무수한 생명이 살고 있다. 구름이 가고, 비가 오고, 하늘에 별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세월은 무궁하고 우주는 무한하며 그 모든 것은 영원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다. 무궁이라는 말, 무한이라는 말, 영원이라는 말, 모두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아! 이것이 신비가 아닐까. 지금 내가 살아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신비다. 지금 이 자체

가 축복이다.

나는 그림이란 무엇인지 모르면서 오늘도 그림 일을 한다. 아름다움이란 게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서 오늘도 일을 한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아름다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분명 아름다움이란 것은 있다. 이 세상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아는 범위가 얼마나 될까? 큰 사막에서 그중 모래알 하나만큼은 될까? 가까운 예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 것일까?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른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숨 쉬듯 일한다.”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다. 그러나 살기 위해 숨을 쉬는 것은 아니다.

공리를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다.

쓸데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 스승이 말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하는데 웃음이 절로 난다. 참으로 명담(名談)이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숨 쉬듯 일한다. 내게는 마치 염불 소리처럼 들린다.

신의 나이 때였다. 무질서가 보였다. 나의 가슴 안마당이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듯 어질러져 있는 풍경을 보았다. 무서운 세월이 지나간 것을 보았다. 폭풍우가 끝나고 맑은 햇살이 먹구름을 뚫는 것 같은 풍경도 보았다.

두 개의 '나'가 있었다. 하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이며, 또 하나의 나는 멀리 세상 밖으로 무언가를 찾으러 나갔다 내게 다시 돌아오는 나였다. 저 하늘 끝에서 내게 돌아오는 '나'가 있었다. 굉장히 반가웠다. 어서 와서 하나가 되자. 돌아오는 것이 보인다

는 것은 전에는 먼 데를 향해 달려갔다는 것이다. 분리되었다 다시 하나로 합치려 하는 것 같았다. 그 밖에 말로 할 수 없는, 참으로 진기한 일도 보았다. 그런 여러 사건이 신의 나이에 있었다.

T.S. 엘리엇의 <제4의 계단>이란 시가 있다. '네 번째 계단은 구원의 계단'이란 한 구절이 잊히질 않는다. 반세기 전에 읽어서 정확한지는 의문이다. 신의 나이에 여러 진기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 내가 제3의 계단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참음새의 일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무언가 모를 홀가분함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갔다.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참음새의 일들이 일시에 무너졌을 때, 그때처럼 좋은 일이 또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

이 '제4의 계단'인지도 모른다. 잿더미에서 움이 돌아나는, 그런 조용한

최종태 • 1932년 대전에서 4남 1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 대전사범학교 2학년 때부터 이동훈 선생에게 그림지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들어가 김종영 선생과 장육진 선생을 만났다. 1958년 조소과를 졸업하고 1959년부터 국전에 출품하여 문교부장관상과 추천작가상을 받았다. 그림과 조각 못지않게 글쓰기를 좋아하여 '나의 미술 아름다움을 향한 사색' 등 7권의 수상집과 '교회조각' 등 8권의 화집을 냈다. 여러 잡지에 글을 쓰고 여러 성당에 성상을 만들어 앉혔으며, 호암미술관·대전시립미술관·가나아트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한국가톨릭미술상·서울시문화상·대한민국예술원상을 받았고,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김종영미술관장·서울대 명예교수·대한민국예술원회원이자.

2019년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일요특강)

(사)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에서 법정 스님의 영상강연&법문으로 일요특강을 진행합니다.

시대적으로 진정한 어른과 진정한 가르침이 사라져가고, 경쟁과 외로움이 존재하는 현시점에 스님의 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으로 마련하였으니, 많은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정 : 3월 ~ 11월, 4째 일요일
(4째 일요일외에는 일요 가족법회가 병행됩니다.)
- 시간 : 오전 11시(사시예불 후)
- 장소 : 설법전

성북동 길상사 터의 역사 ①

글 • 홍정근

성북지역의 역사

성북지역은 북한산 줄기가 서남방으로 뻗어 용암봉·시단봉을 지나 북한산성 대동문과 보국문 어간에서 갈라진 칼바위능선을 동쪽으로 하고, 이어 북한산성의 능선을 따라 보현봉에서 형제봉을 잇는 능선을 따라 북악터널 위를 가로질러 북악산 응봉에서 한양도성을 따라 내려오는 산세를 북쪽으로 하여, 그 사이 계곡을 흘러 청계천·중랑천에 이어 한강으로 들어가는 정릉천·안암천·우이천을 끼고 그 산록의 동남방에 자리 잡고 있다.

고려 시대에 성북지역을 포함한 서울은 대체로 정종 때까지는 양주, 문종 이후 충렬왕 때까지는 남경, 충선

왕 이후 고려말까지는 한양부로 불렸으며, 고려 시대 남경의 영화를 말해주는 듯 보문사, 미아사, 경국사 등 고려 시대로부터 전승된 유명사찰이 건재하고 있다.

조선 시대에 들어 한양 천도가 실현되자 성북지역은 수도 한성부의 성저십리 지역(서울의 도성(都城) 밖 십리 안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편제되어 행정부의 통치를 받는 곳이었으며, 북악산을 중심으로 약 18km의 한양도성을 쌓으면서 사대문(四大門) 가운데 하나로, 1396(태조5)년 도성의 북쪽에 숙정문(북대문)이 건립된다. 그러나 숙정문은 나머지 문과는 달리 험준한 산악지역에 있고, 문을 나

서면 북한산이 앞을 가로막아 한양에 들어오는 데에는 동소문을 거치는 것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므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성곽의 혜화문(동소문)을 지나서 되넘이 고개(지금의 미아리고개) 넘는 길은 한양에서 강원도를 거쳐 함경도로 가는 길이었다. '되넘이 고개'라는 지명은 '되놈(중국인을 하대하여 부르는 말)들이 한양을 공격할 때 넘어오던 고개'라는 것에서 유래했다. 만일 되놈들이 그 고개를 넘어 동소문까지 공격하면 그다음은 바로 궁궐이 공격당하게 된다.

특히 현재 성북동 지역은 남편이 집을 나가 노구메(산천의 신령에게 제사할 때, 신에게 올리기 위해 노구술에 지은 밥)를 차려 매일 기도를 했더니 남편이 돌아왔다는 전설에 따라 노구메 골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산세가 험준하여 도둑들이 출몰했다고 해서 도둑골로도 불렸다. 예전부

터 북한산의 남쪽 기슭에는 호랑이가 나올 정도로 산림이 우거진 곳여서, 조선의 국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호랑이 사냥을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성북지역은 한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고, 숙정문이 있는 지역은 길은 험난하지만 궁궐을 수호해야 하는 군사적 요지이기도 했다. 그래서 동소문과 되넘이 사이에 있는 삼선평이라 불리던 분지에는 병졸들이 무예를 익히는 연무장이 있었고, 조선 후기에는 이곳에 도성을 지키는 군대인 어영청의 북둔을 설치하였다.

성북동의 역사

조선 후기 경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왕위에 오른 영조(英祖, 1694~1776년)는 즉위 직후 불안한 왕권과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론과 소론을 아울러 기용함으로써 당쟁의 폐해를 제거하려 했다. 그럼

에도 정쟁의 논란은 그치지 않아, 늘 불안했던 영조는 도성 수비를 강화하였고, 도성 북쪽 인적 없는 골짜기에서 반군이 경희궁으로 쳐들어올 것을 걱정하였다.

1968년 1월 21일(1.21사태)에 북한 남파 무장공작원의 청와대 기습 사건(일명 김신조 사건)을 보아도 북악산 지역이 군사지역으로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당시 성북동 지역은 누에의 먹이인 뽕나무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 잠신(蠶神)인 서릉씨(西陵氏)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선잠단지(先蠶壇址)가 있었다. 조선시대 풍요로운 먹을 거리[食]와 입을거리[衣]를 얻기 위해 백성들에게 농사와 양잠을 권장하는 행사에 왕과 왕비가 직접 나서서 모범을 보였는데, 왕은 전농동(典農洞)에 있는 선농단(先農壇)에서 농사짓는 시범을 보이는 친경행사(親耕行事)를, 왕비는 성북동천 아래에 있는 선잠단(先蠶壇)에서 누에치는 시범

을 보이는 친잠행사(親蠶行事)를 주관함으로써 백성들의 노동력과 생산이 많아져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를 풍요롭게 하려고 했던 곳이다.

그러한 영조의 걱정을 알고 영의정 홍봉한이 계책을 내는데, “선잠단 근처에 비록 토질이 좋지 않은 밭이나마 있고, 계곡의 수량도 넉넉하니, 어영청 군사 수십 명을 모집하여 마을을 만들어 밭을 경작하게 하고, 세금을 감하여 정착하게 하면 훌륭한 방패막이 될 것”이라 하니 실행에 옮길 것을 명한다. 영조 41년(1765) 어영청의 성북둔城北屯(현재 성북초등학교 부근)을 설치하여 소속된 군인과 백성들을 이주시켜 삶을 영위하게 하자, 1년 만인 1766년 선잠단 부근에 수십 호 규모의 마을이 형성되었고, 저녁이면 도성 북쪽 아래 골짜기에 있는 마을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니,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마을을 ‘성북동城北洞’이라 불렀다.

그러나 어영청에서 내어준 농토는 모래흙으로 이루어져 작물이 뿌리 내리지 못했고, 성북동 사람들의 궁핍한 생활이 지속되자, 굶주림에 참다못한 마을주민들은 하나둘 떠나거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영조는 농사가 아닌 일감을 가져다주어 일정한 노임을 받는 방식으로, ‘포백훈조계曝白燻造契’라는 촌락 단위 공동노동조직을 만들어 생포목을 잣물에 삶아 빨아서 하얗게 표백시키는 권리를 준 것이다. 성북동 골짜기의 성북천 언저리에서 도성과 궁궐의 마전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들만이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다. 그러나 그 일거리만으로는 밥벌이가 되지 못하자 그때까지 종로구 세검정동 언저리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주었던 메주 쑤는 권리도 갈라서 주었다.

그리하여 왕명을 믿고 도성 북쪽 향량한 골짜기로 들어와 살게 된 수



1825년(순조 25)경에 김정호(金正浩)가 제작한 것으로 전하는 서울시기도 수선전도(首善全圖) 일부분, 성북동이 표시되어 있다

십여 세대 사람들의 자생활 길이 열렸다. 포목을 마전해서 도성안 가게들에 납품하고, 또 메주를 쑤어서 궁궐에 공급해서 받는 얼마간의 일정한 수입이 성북동 주민들의 생계 수단이 되었다.

지금도 성북동 언저리에는 마전과 메주 쑤는 일과 관련한 지명들이 전해지는데, 생포목을 빨래했다고 해서 빨래골, 메주를 보글보글 끓인다 해서 북적골이 생겼다고 한다.

또한, 안정된 생업을 갖게 된 성북동 주민들은 집 주변 공지마다 복숭아, 자두, 살구, 앵두 등 유실수를 심

어 가꾸기 시작했다. 관상용이라기보다는 도성 안 시장에 내다팔아 생계에 보탬 요량으로 기르는 나무들로 복숭아가 주종을 이루었다. 복숭아 나무는 4월 곡우를 전후해서 초가 사이사이에서, 성북천 양안에서 꽃잎들을 흐드러지게 피어 올렸다.

북둔도화北屯桃花

한양도성의 북쪽에 있는 주산인 북악에서 동쪽으로 낙산에 이르는 좌청룡의 산줄기에서 가장 높게 솟아 오른 봉우리가 응봉이다.

도성의 문으로 이야기 하면 북대문인 숙정문(肅靖門)에서 동대문인 흥인지문(興仁之門)을 말한다. 응봉은 한양의 종로 일대의 변화가인 운종가(雲從街)까지 준수한 산줄기를 뺀친 봉우리로 중요한 국가시설인 창덕궁과 창경궁 그리고 종묘와 성균관을 품고 있는데, 낮은 산줄기에 쌓은 한양도성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도성 밖은 한양오경(漢陽五景) 중의 하나인 ‘

북둔도화(北屯桃花)의 절경을 품고 있는 곳이 성북동천(城北洞天)이고, 도성 안으로는 조선 시대 국립대학인 성균관과 반촌(泮村, 성균관 출신 고위층의 비호로 인해 사실상 치외법권 유흥가 지역)이 자리 잡고 있다.

한양오경이란 한양에서 경치가 좋은 다섯 곳을 이르는 말로 ‘인왕산 살구꽃’ ‘세검정 수석(壽石)’ ‘서지(西池) 연꽃’ ‘동대문 밖 버드나무’ 그리고 ‘북둔도화’로 성북동천에는 복숭아꽃이 아름다웠다고 한다. 북둔이란 도성 밖 북쪽을 지키는 성북둔을 의미한다.

1780년 이후부터 ‘북둔도화’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도성의 양반뿐만 아니라 서민들까지 성북둔 근교를 찾아와 적당한 곳에 술상을 차려놓고 시를 지어 주고받거나 노래를 듣고 부르며 즐기게 되고, 점차 양반들에게 명성이 높아지면서 1800년을 전후로 성북동 여기저기에서 도

성 양반들의 별서(別墅)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명예와 부를 가진 이들은 서민들이 사는 북저동(현재 덕수교회 부근 마을)과는 조금 거리를 둔 한적한 계곡이나 야트막한 언덕에 정원을 조성하고 그 사이에 기와집 몇 채를 들여놓았다. 농사를 짓는 일반 백성들이 살기에는 버거웠던 돌 많고 험한 산골이었지만, 일 안해도 되는 양반들에게 성북의 산골과 계곡은 도성에서 제일 가까운 사냥터이자, 휴식처였다. 궁궐 뒤쪽 성만 넘으면 바로 펼쳐지는 수려한 자연경관 때문인지, 조선의 왕자들도 이곳에 별장을 지어 공부 했고, 유명한 문인과 화가들이 거처를 마련하고 이 일대의 빼어난 경치를 그림과 시문으로 남겼다.

다른 지역에 비해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조선 시대부터 양반들의 별서로 사랑받은 성북동은 의친왕 이강의 별서인 성락원, 여흥 민씨 충정공 민영환의 음벽정 등은 지금까

지도 이름을 남기고 있고, 이종석의 별장, 안동 김씨 집안의 별서 등도 성북동에 있다. 성락원과 이종석의 별장은 아직도 남아 당시 양반들의 호화로운 삶을 보여주고 있다.

1790년경부터 하나둘 조성된 별서는 19세기 말까지 꾸준히 숫자가 늘었다. 이와 같은 조선 시대 성북동의 별서 조성의 전통은 일제강점기의 양옥 별장으로, 오늘날에 와서는 재벌들의 고급 주택지 조성으로까지, 시대마다 조금씩 형태를 달리해 이어졌다. (다음호 계속)

※ 이 글은 성북문화원에서 발간한 ‘성북동 만년의 역사, 꿈의 공간’을 참조하였습니다.

4월 결연 대상자 - 최영진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한 어르신

어르신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내였습니다. 사랑스런 아내, 든든한 큰 아들, 의젓한 둘째 아들 그리고 귀염둥이 막내딸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쉴 틈 없이 일했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에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옥이야 금이야 키우던 3명의 자녀가 모두 하늘로 떠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외손주를 보고 싶어 하는 장인, 장모님을 위해 아내는 아이들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아내에게 마침 일이 생겨서 당시 18세인 장남에게 동생들을 맡겨 먼저 가게 했는데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내의 잘못이 아님을 알지만 아내만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불쑥 튀어나와 상처 주는 말을 쏟아 내었습니다. 괴로움을 잊고자 술에 취해 살기를 수년... 정신을 차릴 때쯤에 어르신의 옆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과 남편의 원망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허약한 건강으로 열악한 환경을 견디는 어르신

올해 만 80세인 어르신은 건강도 허약한 상태입니다. 6년 전 위암 수술을 받았고 허리 협착증으로 통증이 심하고 감각이 둔하여 보행 시 어려움

이 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마다 주사 치료를 받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어서 비용 부담이 큼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께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하지정맥류입니다. 병원에서 수술 권유를 받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통증이 심하면 앉아서 주물러 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개와 작은 부엌이 딸린 허름한 집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수나 목욕도 좁은 부엌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큼니다. 또한 가스보일러가 없어서 전기 히터, 전기장판, 허름한 실내용 텐트에 의지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히터는 화재 위험성이 높아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

위를 견디기에는 주거 환경도 어르신 의 건강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위태롭게 생활하는 어르신께 작은 온정을...

어르신은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현재 약 67만 원의 생계비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오는 월세 17만 원, 각종 공과금과 앓고 있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어르신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부족하여 생활에 고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께 가장 필요한 것은 기초적인 생계비입니다. 월세 17만 원과 충분한 영양분 섭취 등을 위해 생계비로 총 480만 원(40만 원 * 12개월)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모두 떠나가고 홀로 남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어르신이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온정이 필요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가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글 • 백형찬

한 교육기업이 전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90%에 가까운 교사들이 “과거에 비해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고 대답했다. “어떤 점이 변했느냐?”는 질문에 50%가 넘는 교사가 “학생보다는 아무 탈 없이 1년을 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리고 30%에 가까운 교사는 “학생이 잘못해도 혼내거나 벌을 주지 않게 됐다.”고 답했다. 또한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도 학부모와 상담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나왔다. 어떤 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이 두려워 몸을 사리고 기계처럼 가르치기만 한다.”고 고백했고, 또 다른 교사는 스스로를 ‘생계형 교사’라 비하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이 나라 교육은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누가 이 나라 교육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을까? 가르치는 교사일까? 배우는 학생일까? 아니면 학부모일까? 사회일까? 그 누구를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가해자이고 모두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든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힌 것이다. 어쨌든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은 교사이므로 교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어느 교육학자의 말대로 ‘교사는 상품을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육체적 노동자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정신적 감화를 주는 예술적 근로자이며, 더 나아가 높은 이론적 배경과 오랜 기간의

학문적 수련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교사가 학생들을 기계처럼 가르치고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사람은 교직에서 어서 내려와야 한다. 교직은 거룩한 성직(聖職)이며 동시에 정성을 다해 가르쳐야 하는 성직(誠職)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 있다. 바로 ‘줄탁동시(啐啄同時)’이다. 병아리가 딱딱한 껍질을 깨트리려고 나오기 위해 끊임없이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어미 닭이 병아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 한다. 교육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려고 애쓰는 학생을 교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힘껏 도와주는 일이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학생들은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 교사는 이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

들이 알을 깨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교사가 알을 깨고 나오려는 학생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교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는 스승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교육은 학생의 머릿속에 정보를 채워주는 일이 아니다. 지식과 지혜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는 일이 교육이다. 교사와 학생은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배워간다. 양쪽이 모두 학생이기 때문이다.” 이는 간디의 정신을 이어받은 비노바 바브가 한 말이다. ‘줄탁동시’의 가르침과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의미를 제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나라 선생님들은 반드시 비노바 바브의 말을 명심해야 한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글 • 곽영미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보람 있게 쓰는 거지요. 나는 부자의 삶에는 두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그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단계이지요.”

카네기는 자신의 말처럼 일생을 두 단계로 나누어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64세까지 일을 하며 돈을 번 첫 번째 인생과 자신이 번 돈을 사회에 나누어 주는 두 번째 삶을 살았지요.

카네기 집안은 돈을 벌기 위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였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먹여 살

리느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매일 공장에서 일만 했어요.

“책만 있으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을 텐데, 책을 살 돈이 없으니…….”

카네기는 책을 읽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책을 구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카네기는 이웃에 사는 제임스 앤더슨 대령이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공짜로 빌려준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책벌레인 카네기에게는 웃음이 터질 만큼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그날부터 카네기는 일을 마치면 대령의 집으로 쫓르르 달려가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대령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책을 빌려줄 거야.’

그 시절 카네기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어린 카네기는 누구든 책을 읽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깨끗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훗날 카네기는 당당히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미국에 2,800개가 넘는 도서관을 세우고 다른 나라에도 300개가 넘는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 재단’을 세워 대학교, 연구소, 음악당 등 많은 곳에 큰 돈을 기부했습니다.

“마치 알라딘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세웠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돈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무척 놀랍습니다.”

카네기는 자신이 번 돈으로 그토록 많은 일을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카네기는 도서관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땅과 돈을 기부했지만, 도서관에 책을 채우는 일에는 한 푼도 내놓지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은 카네기의 마음도 모르고 무턱

대고 그를 비난하기도 했지요.

돈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책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충분히 갖고 있었어요. 카네기는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만큼의 노력과 투자를 해야 도서관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미국의 부자들은 다른 나라의 부자들보다 기부를 많이 한답니다. 물론 세금을 깎아 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많은 재산을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고생해서 번 돈을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신의 축복이라면 나누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미국 부자들의 기부 문화를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카네기에 이어 석유왕 록펠러, 자동차왕 포드,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등의 억만장자들이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카네기는 세상에 '나눔'을 알리기 위해 많은 책을 썼습니다. 스스로 고생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것은 자신을 도와준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회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카네기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기분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준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돌려주게 되어

정말 기뻐합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구제 기금을 만들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도왔고, 친구들의 노후 연금도 마련해 주었지요. 이제 그는 자신이 번 돈을 사회에 기부하여 부를 나누고 '노블레스 오블리주(프랑스어로 '귀족의 의무'이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를 실천한 부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 앤드루 카네기는 1835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미국인 사업가이다. 철강 사업을 시작하여 카네기 철강 회사를 세웠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 정도로 큰 돈을 벌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이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내놓아 '철강왕'에서 '기부왕'으로 변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기요, 질문 있습니다.

글 • 양정훈

오래전 종영했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다. 일반인 참가자들이 다양하게 기획된 생존게임을 통해 우승자를 가리는 방송이었다. 최종 1인은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상금으로 받게 된다. 출연자 한 명이 이를 악물고 매 게임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인간힘을 썼다. 작은 속임수도 부렸다.

결국 프로그램에서 승리를 거머쥔 그녀는 인터뷰하며 울먹였다. 기뻐서 그러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녀의 대답은 전혀 달랐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 제 현실이 너무 비참해서 그래요." 나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이토록 치열하게 상금이 필요한 자기가 슬프

다고, 최선을 다해 자신을 몰아붙여야 뭔가 이룰 수 있는 종류의 삶이 그녀는 그렇게 아팠다.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어떻게 좋은 삶이 될 수 있는가. 항상 인간힘을 다해야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이를 악물고 간절해야 꿈에 닿을 수 있는 사회가 어떻게 건강한 곳인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지 못하겠다. 어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면 그게 곧 바른 삶이라는 공식은 이 시대에도 유효한가. 역시 잘 모르겠다. 오히려 되묻고 싶다. 도대체 어찌라는 거요?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면 좋은 세상 옵니까?

한 남자가 있었다. 일단 그는 채식 주의자였다고 전해진다. 예술에도 꽤 조예가 깊어 음악과 미술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다는 문헌도 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한 민족과 국가, 정치와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정답은 히틀러다. 많은 사람이 히틀러를 그저 미치광이, 인면수심의 학살자로만 생각하지만, 히틀러는 명백히 그가 속한 공동체의 행복이나 성공에 대한 나름의 신념과 치밀한 논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 당시 독일 국민들 역시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홀로코스트(Holocaust)와 같은 인류 최악의 대학살이 벌어졌는가. 히틀러와 나치에 의한 인권 유린, 또 이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지지했던 독일 국민들에 관한 수수께끼는 수많은 사회학자, 인권학자들과 평화연구자들이 풀고자 했던 매우 중요한 숙제였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보고 중 '질문할 수 있는 힘'과 '의심을 허락하는 사회'에 관해 주목하고 싶다. 수많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무섭고 잔인한 인권유린의 주도자, 동조자, 혹은 방관자가 되는 과정. 이는 편견과 권위,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조장된 집단적 가치를 의심이나 질문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인권은 결국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며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주는 개념이다. 여기서 핵심은 결국 행동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문제는 행동이란 과연 어디에서 출발하는가에 있다. 대답은 간단하다. 행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행동을 이끄는 마중물이다.

그러니 질문하지 하지 않는다면, 혹은 질문이 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필요한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에서 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거나 질문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는 곧 우리가 어떤 사회

양정훈 • 수필가 겸 월간지 편집인. 인권교육가. 스웨덴과 영국 등에서 인권을 공부했고, 국제자원 활동 NGO, 정부기관 등에서 일했다. 현재는 여행인문학전문지 편집장을 맡으며, 글을 쓰고, 교육 활동을 한다. 《북유럽은 행복하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여행》 등을 썼다.

'작은 녹색 나눔 장터' 개장 안내

맑고 향기롭게에서 준비한 '작은 녹색 나눔 장터'가 올해에도 진행됩니다. 작년에 보내주셨던 뜨거운 호응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장터 역시 풍성한 물품들로 가득 채우고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환경과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들로 장터를 열 예정이니 친환경/천연 제품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 장터 예정일 : 음력 3~8월 초하루 (4월 5일(금), 6월 3일(월), 7월 3일(수), 8월 30일(금))
- 장소 : 길상사 뜨락
-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2시

잡초와 채소

글 • 권오분

고추나무가 흰색 꽃을 피우더니 어느새 골목 안을 꿀꽃의 향기를 담은 진한 향으로 채우며 바닥에 하얗게 꽃잎을 떨어뜨려 놓았다. 씨락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소복이 쌓인 꽃길에 발자국을 내기가 미안할 정도로 예뻐다. 꽃잎을 밟지 않으려고 까치발을 하고 조심스럽게 피해 다녔는데도 며칠이 지나니 어느새 하얀 꽃길은 누렇게 현미 색깔로 변해버렸다.

떨어지면서 흉물스러워지는 목련 꽃보다야 꽃도 오래가고 떨어진 뒤에도 며칠씩이나 흰색을 유지하니, 올봄 가장 훌륭히 꽃 노릇을 한 것은 누가 뭐래도 고추나무이리라. 어

디 그뿐인가. 새순을 꺾어서 데친 나물로 두 번이나 손님들께 대접했으니, 고추나무는 내 눈과 내 입과 내 마음과 내 몸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 올봄 최고의 나무다. 그런데 의외로 고추나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고추나무는 온대 지방에서 자라는 고추나무속의 낙엽 관목으로, 어린 순을 데치면 고춧잎을 데쳤을 때의 냄새와 비슷해서 고추나무라고 부른다.

봄날 어느 하루, 나는 골목 담벼락을 따라 긴 꽃밭을 만들었다. 마당에 깔린 벽돌을 빼다가 돌레를 만들고 흙을 채우느라 온종일, 밥도 굶은 상태로 일을 했다. 일이라

는 말을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어린애 흉장난 같았지만 아픈 다리로 일을 한 내가 대견하고 신통했다. 골목에 동네 사람들이 몰래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게 속상해서 꽃밭을 만들자고 3년을 버르다가 이제야 꽃삽을 들었다.

종암다리 아래 개울가에서 뱀딸기, 썸바귀, 고들빼기, 애기똥풀, 질경이들을 뽑아다 심었다. 비 오는 날 옷이 흠뻑 젖은 것을 보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모두 한 마디씩 거든다.

“별일이야. 고추 모종이나 상추를 심으면 좋을 텐데, 풀을 일삼아 심는 사람은 난생처음 보겠네.”

“흙이 너무 얁아서 고추가 견딜 수 있을까요?”

“심어봐. 고추는 흙을 돋우어 주고 나뭇가지로 기둥을 세워주면 되니까 괜찮을 거야. 상추는 뿌리가 짧아서 흙이 깊지 않아도 되고, 또 몇 포기만 심으면 한참 먹을 수 있을

거구. 아무려면 잡초보다야 못할까.”

내친김에는 손도 씻지 않은 채 꽃 시장에 갔다. 늘 꽃만 사느라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토마토, 가지, 고추, 피망, 파프리카, 상추, 케일, 호박, 오이, 수세미, 조롱박, 겨자... 이름도 모르는 여러 가지 모종들이 무척 많았다. 천원에 네 포기 하는 것도 있고 다섯 포기짜리도 있었다. 나는 가지를 네 포기 사고, 상추는 여러 종류가 있기에 종류별로 샀다. 동네 아줌마 말이 생각나서 고추 모종도 2천 원어치를 샀다.

그리고 나의 담벼락 꽃밭으로 돌아와 그것들을 정성껏 옮겨 심었다. 뿌리나 잎이 상할까 봐 어린아이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 어린 생명을 다루었다. 작은 비닐 포트에 담아서 키운 것이라 심기도 편했다. 풀은 풀대로 둔 채 간격을 두고 심었다. 고운 비가 내리고 있어서 모종을 내기에

는 좋은 날이었다.

일주일쯤 지나니 모두 자리를 잡은 듯 꽃봉오리를 열었다. 고추는 하얀 별 같은 꽃이 피고 가지는 보라색 별 같은 꽃이 피었다. 가까이서 보니 고추도, 가지도 꽃이 예뻐다. 상추도 싱싱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모종을 냈으면 풀은 뽑아야지 왜 그대로 두느냐고 보는 사람마다 성화다. 그러나 그들도 나름대로 예쁜 꽃을 피우고 있으니 차마 뽑을 수가 없었다. 제대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니 그대로 두기로 했다. 모두 생명이니까...

며칠 뒤, 치료를 받느라 의정부에 다녀오는 데 길옆에 <각종 모종을 팝니다>라는 현수막이 걸음을 멈추게 했다. 전문 매장이어서 그런지 고추와 피망이 꽤 크게 달린 모종을 화분에 담아서 팔고 있었다. 크기에 따라서 2천 원, 3천 원이란다. 2천

원짜리 고추와 피망을 하나씩 샀다. 작은 고추 옆에 두면 작은 것들의 기가 죽을 것 같아서 뒷마당에 심었다. 희한하게도 한창 뽑내며 피는 꽃들보다 고추와 피망으로 눈길이 갔다. 매일 매일 커지는 게 눈에 보여서 그런지 날마다 새롭고 신기하고 대견스러웠다. 그 조그마한 생명이 무력무력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 비료도 사다가 조금씩 뿌려주었다.

며칠 동안 낮 기온이 26도를 웃돌아 여름 같았다. 멍칫거리며 눈치를 보던 풀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고추나 상추보다 키가 커지더니 세력을 넓혀 갔다. 어릴 때는 귀엽고 예뻐 보이던 풀들이 고추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 그냥 둘 수가 없었다. 망설이는 나를 언니가 거든다.

“풀이나 짐승이나 사람이거나 어려서는 모두 똑같이 예쁘지. 그래도 씨가 생기기 전에 풀은 뽑아. 비료

를 풀들이 더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고추가 안 예뻐져.”

아끼고 망설이다 덤지 않은 날씨를 핑계로 풀들을 뽑았다. 뽑힌 풀에서도 좋은 풀내음이 났다. 그래도 아까워서 달개비는 나물을 하려고 따로 모았다. 살짝 데쳐서 소금과 참기름만 넣어서 무치면 색깔도 예쁘고 맛이 있는 반찬이 되기 때문이다. 풀로 낫어도 멋지게 쓰였으니 풀들도 고마워할 것 같았다.

잡초와 채소,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갈림으로 풀로서의 그 운명을 달리한다는 생각에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자연 생태계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임에도 잡초로 태어난 풀들은 그냥 뽑혀 버려지니 말이다. 풀 한 포기씩 작은 생명까지 존중해 사람과 함께 그 끝을 맞이하여 결국 자연으로 돌려보낸 작은 배려. 이것이 생명을 존중하는 첫 시작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권오분 • 동네에서 밥 퍼주는 아줌마로 소문난 권오분 님은 과거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오랫동안 글을 연재했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글들을 주로 쓰웠다. <제비꽃 편지> <꽃으로 여는 세상> <아름다운 우리 숲 찾아가기>(공저) 등이 있다.

실업자 및 구직자

● 소득지원

1. 실업급여(6.2조 원 → **7.4조 원**)
 - 비자발적 실업자(연령·피보험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2. 실업크레딧(610억 원 → **641억 원**)
 - 구직급여 수급자(18~60세), 구직급여 수급기간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75% 지원

●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1. 전직 실업자 직업훈련(5,253억원 → **5,976억원**)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미취업상태의 구직자
 - 훈련비 20~95% 지원(최대 200만 원)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 원
2.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신규 **10만 명**)
 - 대학 졸업 후 2년 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월 50만 원, 최대 6개월)
3.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158개소 → **163개소**)
 - 경력단절 중인 구직 희망 여성(취업 종합지원, 직업훈련, 인턴십, 경력단절 예방 지원 등)
4. 자영업자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지원(7,500명 → **20,000명**)
 -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원하는 소상공인
 - 점포정리, 전직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지원

5. 구조조정업종 재취업지원('18추경 600명 → **1,100명**)
 - 조선·자동차 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를 채용한 기업,
 - * 인건비 3천만 원/인 지원(1년)

● 일자리 지원

1. 공무원(57만 명 → **59만 명**)
 - 경찰 6.2천 명, 집배원 2.3천 명 등 현장인력 위주로 1.7만 명 증원(공립교원 포함 2.1만 명)
2. 사회서비스 일자리
 - 어린이집 보조교사(25,000명 → **40,000명**)
 - 아이 돌봄 서비스(23,419명 → **30,495명**)
 - 아동안전지킴이(9,007명 → **10,007명**) 등
3. 노인 일자리(51만 명 → **61만 명**)
 - 만 65세 이상(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신설
4. 장애인 일자리(1.7만 개 → **2.0만 개**)
 - 미취업 등록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재학생 등에게 공공형 일자리 제공

정부가 발표한 수혜자별 주요 지원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이웃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주민 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봄! 봄! 봄!

글 • 최서해

봄, 봄은 또 찾아옵니다. 해마다 찾아드는 봄은 늘 그 봄이 나, 그를 맞는 사람의 가슴은 늘 같지 않습니다. 가슴만 달라질 뿐이 아닙니다. 새봄을 맞는 때마다 달라지는 형모(形貌)는 차마 볼 수 없이 괴롭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주고 가는 선물인지, 생활이 주고 가는 선물인지, 내게 있어서는 분간하기 어려운 자취지만 어쩐지 봄을 맞을 때마다 애뜻한 괴롭이 가슴의 문을 소리 없이 두드려서 견딜 수 없습니다.

생활이란 이처럼 사람을 볶으며, 세월이란 이처럼 사람을 틀어놓는지는 이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도 아니건만, 어렸을 때에 기쁘던 봄이 어

른 된 오늘에 이처럼 괴로울 줄은 나 뿐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악머리를 싸고 흐르는 얇은 아지랑이나 마당 한 귀퉁이에서 뽀족뽀족 터 오르는 새싹은 모두 새봄의 새 빛과 새 힘을 보여 주는 것이로되 내게 있어서는 어느 것이나 괴롭 아닌 것이 없고 슬픔 아닌 것이 없고 추억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남은 다시 피어나는 희열에 방긋거리는데 나는 그것을 괴롭으로 보고, 슬픔으로 보고, 추억으로 보니, 나는 벌써 새싹과 같은 생명을 잃어버렸는가. 차라리 그러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그 괴롭, 그 슬픔, 그 추억도 없

이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삼십을 내일에 바라보는 청춘이외다. 가슴에 푸른 마음이 넘쳐흐르고 혈관에 붉은 피가 소용돌이를 치는 젊은이외다.

나는 이렇게 젊었으므로 이 봄이 괴롭고 이 봄이 슬프고, 그 괴롭 그 슬픔을 모르던 옛날의 봄이 그림습니다. 철모르던 옛날의 봄이야말로 참말 봄이었습시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집안이 어찌 되는지 그것은 생각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전연 모르고, 따스한 별밭이 기어드는 봉당에서 하품하는 개를 말이라고 못 견디게 타고 놀다가 어머니의 꾸지람에 어쩔 줄 몰라하고, 책보는 버드나무 가지에 처매어 놓고 새잡이 그물을 들고 이 들로 저 들로 돌아다니던 그 옛날의 철모르던 봄이 참으로 그림습니다.

그렇던 그 봄은 어디로 갔는가. 이제는 생각하면 옛날의 일이외다. 젊

은 비단 장막같은 아지랑이에 아련히 가린 북악의 윤곽보다도 더 희미하게도 눈앞에 떠오르는 옛날의 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내 일생에 있어서 다시 찾을 수 없는 때외다.

찾을 수 없는 그때를 이렇게 추억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만 추억은 이해(理解)에 있는 것이 아닌가 봄니다. 목전에 닥치는 괴롭과 슬픔이 내 몸을 누르는 때마다 그 괴롭 그 슬픔을 모르고, 양지 쪽에 피어오르는 고사리 싹 같은 어릴 적으로 나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다리를 더듬어 올라가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추억의 사다리를 더듬는 때마다 봄밤, 우수 달빛이 흐르는 봄밤, 푸른 안개 속에 싸인 듯이 푸근한 유쾌와 애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처럼 추억되고 그 추억을 추억하는 것을 향락하는 것만큼 나의 이 봄 생활은 거칠기 그지없습니



중앙모임 소식(02-741-4696)

부처님 오신 날 - '자비의 등을 나누세요'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12일로 다가왔습니다.

중생들의 구제를 위해 자비의 가르침을 퍼신 부처님의 뜻을 따라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을 펼칩니다.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은 법정 스님이 불일암에 머무르실 때부터 주창하신 이웃과의 나눔 운동입니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 친지가 아닌 우리 곁의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을 위해 연등을 밝히자는 취지로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는 1995년에 처음 시작했던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의 방식은 본모임이 결연을 맺고 있는 재가복지사업 대상자중 어려운 형편으로 연등을 밝히지 못하는 불교신도를 위하여 길상사 도량에 자비의 연등을 밝히는 것이며, 후원해주신 동참금 전액은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반찬 나눔 대상자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데 사용됩니다.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루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연등 하나 환히 밝히는 운동에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의 동참금은 최소 10,000원입니다.
- 계좌 입금을 해주실 때 자신의 이름 옆에 '자비'라고 써주시거나 중앙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봄을 봄으로서 느끼지 못하리만큼 나의 생활은 거칠었습니다. 나는 내 생활을 생각하는 때마다 눈 날리고 바람 치는 거친 들을 외로이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강에 층얼음이 풀리고 북한(北漢)의 흰눈이 녹아 세상은 이제 바야흐로 봄 세례를 받게 되건만 내 길의 빙설은 나날이 더해 갈 뿐이외다. 나는 그것이 괴롭고 그것이 슬픔니다.

나는 이 괴롭을 누구더러 털어 달라는 것도 아니요, 이 슬픔을 누구에게 하소연하려는 것도 아니외다. 이 괴롭, 이 슬픔은 나 아니면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다만 이 괴롭을 괴롭으로서 맛보고, 이 슬픔을 슬픔으로서 맛보려 할 뿐이외다. 나는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며, 그저 보려고 하지 않고 밟으려고 할 따름이외다. 나는 거기서 내 생명의 약동을 보고 내 생명의 법열을 얻으려고 합니다.

봄, 괴로운 봄, 슬픈 봄, 추억의 이 봄은 나에게 얼마만의 괴롭과 슬픔과 추억을 주려 하며 그 모든 것은 내 생명의 약동을 얼마나 더 늘려, 내 생명의 법열을 얼마나 더 돋우려는가.

〈신생〉, 1929년 3월

최서해(1901~1933) 소설가

본명은 최학송(崔鶴松) 함경북도 성진 출생. 선진보통학교를 5학년 중퇴한 후 간도 등지를 전전하며 풀팔이, 나무장수, 두부장수 등 최하층 생활을 했으며 이를 문학적 토대로 하여 신경향파 문학의 주류를 형성했다. 이광수의 추천을 받아 문단에 나왔으나 KAPF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곡절이 있었으며 위장병으로 요절했다. 주요 작품으로 <탈출기>(홍염) 등 신경향파를 대변하는 단편소설과 함께 장편소설(호외 시대)를 남겼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2019년 숲기행 맑고 향기로운 암자를 찾아서

2019년 숲기행은 2018년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암자기행을 주제로 지난해에 다녀보지 못한 암자를 둘러보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본래의 나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숲기행 일정 : 매월 4째 주 토요일

일자	장소	숲 특성
4/27	대구 팔공산 은해사	은해사를 비롯한 아름다운 수미단의 백흥암과 청동관세음보살을 모신 원통전과 보화루가 유명한 운부암 그리고 팔공산의 자연경관
5/25	강원도 오대산 북대미륵암	월정사의 산내암자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암자 미륵암과 주변의 수많은 야생화
6/22	대구 팔공산 선본사	약사여래부처님 기도처 선본사와 갯바위 부처님 그리고 관봉 주변의 암자들
7월 휴가철과 더위로 휴식		
8/24	강원도 설악산안양암	신홍사의 3암자 순례와 울산바위 가는 길의 뛰어난 자연경관
9/28	경북 운달산 김룡사	백두대간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운달산과 김룡사의 산내 3암자 순례
10/26	충북 속리산 법주사	속리산의 법주사, 세조가 병을 얻고 3일간 머물면서 병을 고친 복천암, 중사자암 그리고 속리산의 자연환경
10/11	강원도 오대산 동대관음암	월정사의 5대암자 중 중대, 동대, 남대, 3암자와 부도전 그리고 선재길

※ 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0월 11일은 봉사자 숲기행으로 (사)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만 참여 가능

2. 접수 안내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 및 길상사 신도 :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 (4월 1일, 5월 6일, 6월 3일, 8월 5일, 9월 2일, 10월 7일)
- 일반인 : 매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 (4월 8일, 5월 13일, 6월 10일, 8월 12일, 9월 9일, 10월 14일)

3. 참가비

- 회원 및 신도 : 30,000원 / 일반인 : 40,000원
- 입금처 :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 맑고 향기롭게
- 참가비 환불 원칙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할인 안내

- 전년도 3만 원 이상 후원 회원에 한하여 할인 가능하며 신규 회원은 후원금 납부하여 3개월 후 참여 가능
- 길상사 신도는 신도증 소지자로 한함
- 가족 참석은 직계 가족 1인으로 한함

5. 탑승지

- 길상사 일주문: 오전 6시 10분 / 한성대역 5번출구: 오전 6시 20분 / 양재역 2번출구 오전 7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6.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02-741-4696)

2019년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생' 공지 및 장학증서 수여식

- 장학 대상 : 일반고, 특성화고, 과학고 학생(50명 내외)
- 장학 기간 : 1년(분기마다 각 학교 발전 기금 계좌로 입금됨)
- 장학생 선정 발표 : 2019년 4월 3일(수)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장학증서 수여식 : 2019년 4월 12일(금) 오후 3시
- 수여식 장소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 서울, 경기권 선발 장학생은 필히 참석 요함 (추천자, 학부모, 선생님 동참 가능)
 - 지역 거주 학생은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사무국(대구, 경남, 광주 모임)을 통하여 별도 수여



법정 스님 9주기 추모법회 봉행

2019년 3월 2일(음력 1월 26일) 말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맑은 가난과 나눔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시고, '무소유'란 말고 향기로운 가르침으로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셨던 법정 어른스님 입적 9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추모 법회는 다섯 번의 명종 소리로 시작되어, 삼귀의, 반야심경, 조계종 어산어장 이신 원명스님께서 중사영반을 집전하시는 가운데 헌향, 헌다, 헌공, 헌화 순서로 봉행되었습니다. 9주기 추모법회에서 법정 스님의 영상법문은 '1994년 3월 26일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개최되었던 말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모임 발족 대중 강연'을 편집하여 스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고 향기롭게 초창기 사진을 보며 말고 향기롭게 취지와 옛 추억을 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송광사 동당 법흥 스님께서 추모 법문과 더불어 효봉 스님과 법정 스님 간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 주셨으며, 이어서 이계진 전 이사님의 추모 사도 있었는데, 법정 스님의 책읽기 모임을 통해서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이어나가자는 굵고도 짧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창단의 추모헌음과 사부대

중이 모두 사홍서원을 끝으로 9주기 추모법회를 회향하였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추모법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신 길상사 신행단체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말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 「말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말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해주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말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말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말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9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

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경기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할수록 조그마한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3월부터 10월 까지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 나눔을 진행합니다. 중앙모임 봉사자를 비롯하여 KTX 나눔이회, S파워 사랑봉사단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함께 협력하면 훨씬 더 쉽고 맛있게 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노인노인요양원 자원활동

노인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 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내부 공사로 인해 운영 중단 중입니다. 당분간 봉사활동이 중지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말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말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



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달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4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3일(수)/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일요특강(법정 스님 영상법문) : 28일(일)/오전11시/길상사 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14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물어도 껌찜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만발식당 내부 공사 관계로 잠정 중단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13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20, 27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숲기행 4월 27일(토) 대구 팔공산은해사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 작은 녹색 나눔 장터 : 4월 5일(금) 음력 3월 초하루/오전 10시~오후 2시/길상사 트랙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법정 스님의 저서를 읽고 따라 쓰는 '맑고 향기롭게 필사 모임 1기' 모집 안내

맑고 향기롭게 중앙 사무국은 법정 스님의 저서를 읽고 따라 쓰는 활동을 통하여 스님의 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 보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사 모임을 기획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 기간 : 2019. 4. 8 ~ 4. 26
- 모집 인원 : 10명
- 활동 시간 : 5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2시
- 장소 : 길상사 다라니 다원
- 지원 방법 및 문의 : 중앙 사무국 전화 접수 02-741- 4696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3층공간은 대관으로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자 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장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기정과 함께 명상 및 문화기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 태극권, 형익권, 팔괘장 정통계승 및 기공활법 활기공 전수자이며 현재 대체의학 테라피를 진행하고 있는 백무현 선생님을 모시고, 매 주 월, 수, 목 오후 8시에 몸살림 기공체조 강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법정 스님 책임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운영/오전9시30분~오후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신수동에 지역 회원들 의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향기로운 가계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환경 및 시설 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사업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정기후원 / 편리한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정기 후원 회원 가입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접속 가입서 작성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방문 가입서 작성 www.clean94.or.kr
온라인 후원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 817-01-0255-458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대구 002-05-016277-8
광주모임 (062-236-3129)	농협 355-0018-7812-13
경남모임 (055-266-0170)	농협 932-01-002933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주셔서 회원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지장 천일기도 7회차 입재

- 일시: 4월 1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보름기도

- 일시: 4월 19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범회

- 일시: 4월 5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4월 22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4월 6일(토) 오후 6시 ~ 8시 30분
- 장소: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관음재일

- 일시: 4월 28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4월 13일(토) 오후 8시 ~ 4월 14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극락전

저녁 예불 시간 변경 안내

4월부터는 저녁 예불 시간이 '7시'로 변경됩니다.

4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초하루기도	4월 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 기도	4월 6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4월 13일	저녁 8시 ~ 새벽3시50분	극락전
보름기도	4월 1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4월 22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4월 2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불기2563년(2019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모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공양을 접수받습니다.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루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훼손되고 오염되어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 연등 하나 환히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종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 : 종무소 02)3672-5945

법당등(10만원)	도량 연등(3만원)
극락전 가족등	도량 가족등
지장전 영가등	도량 영가등

※올해부터 법당 영가등은 지장전에 모셔집니다.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제 20회 길상음악회

- 일시 : 5월 12일(일) 저녁 7시
- 장소 : 길상사 뜨락
- 출연 : 길상사 합창단, 박창근, 인디언쿠스코, 추가열



(사)맑고 향기롭게 대학생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나누는 기쁨

● 모집대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
의 재(휴)학생 동아리팀

● 참가팀 구성 : 최소 5명에서 10명 내외로 구성 권장

● 참여자 혜택

-최대 150만원 사업비 지원
-활동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 인정

● 활동(예)

-노인, 미혼모, 아동,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
-에너지 절약, 나무심기 등의 자연보
호 사업
-벽화 그리기 등 마을환경 개선 사업

● 일정

-접수기간 : 4월 1일(월) ~ 4월 12일(금)
-합격팀 발표 : 4월 18일(목)
-합격팀 OT : 4월 20일(토)
-봉사활동 수행 : 5월 ~ 10월 / 최소
6회, 30시간 수행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봉사활
동 1회 참여(의무)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 11월 15일(금)
-결과보고회 : 11월 30일(토)
※세부 일정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clean94@hanmail.net
"나누는 기쁨(팀이름)"으로 전송
-상세한 모집 진행 및 서식은 홈페이지
www.clean94.or.kr에서 다운로드

● 문의처

02-741-4696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사무국

